

오전에 '빗방울'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낮 한때 비가 온 뒤 개겠다.

4월 29일 (음 4월 2일)

광주	11~20℃
포항	11~18℃
여수	12~18℃
완주	11~19℃
구례	10~20℃
남원	10~19℃
장흥	10~20℃
곡성	9~20℃
순창	9~18℃
영광	10~19℃
진안	9~18℃
남원	8~19℃
정읍	9~18℃

서해남부 앞바다
남동~남서풍 파고 1.0~2.0m
서해남부 앞바다
남동~남서풍 파고 1.0~2.5m
남해서부 앞바다
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
남서~서풍 파고 1.5~2.5m

목포 밀물 < 03:06 썰물 < 08:16
여수 밀물 < 09:51 썰물 < 03:47
15:52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30(일)	5/1(월)	2(화)	3(수)	4(목)	5(금)
날씨						
최저/최고	15/26	14/23	12/25	13/26	14/23	13/16

광주·전남 '여름같은 봄' 휴일 낮 최고 26도

주말인 29일 광주·전남에는 오전 한 때 비가 오겠지만 곧 갠 뒤, 휴일인 30일은 낮 최고기온이 26도까지 올라가는 따뜻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9일 오전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5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이라며 "오후 들어 기압골이 빠져나가면서 갠 것"이라고 28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또 "서해와 남해에는 새벽 한 때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되며, 곳에 따라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다"며 향해 나 조업하는 선박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휴일인 30일은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광주의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5도, 낮 최고기온은 26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5도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20도를 웃도는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만큼, 주말과 휴일 나들이객들은 산별 예방에 특히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대통령 할아버지 보겠네"

니주 '코시안' 10명 어린이날 청와대 방문

"대통령 할아버지를 직접 볼 수 있어 좋아요. 하인스 위드 아저씨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래요"

니주 노안초등학교 코시안(한국인과 아시아인이 결합해 낳은 2세) 학생들. 이들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다름 아닌 청와대 초청을 받아 어린이날에 노무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기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초청받은 코시안 학생은 1학년 2명, 2학년과 6학년 각 1명, 3학년과 4학년 각 3명 등 모두 10명.

이들 중 일부는 '외국인 엄마'와 함께 청와대를 방문하고, 급우 23명도 동행한다.

엄마가 팔리된 사람인 이모(11·4년)양은 28일 "TV에서만 보던 청와대를 직접 방문해 대통령 할아버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기쁘다"며 "어린이날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엄마가 일본인인 김모(11·4년)양도 "친구들과 서울 구경도 할 수 있어 좋다"며 "잊지 못할 어린이 날이 될 것 같다"고 기뻐했다.

노안초교 임동민 교장은 "코시안 학생들은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점 외는 일반 학생들과 다를 바가 없다"며 "언어 등 학교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코시안 학생들과 부모들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갈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며 사회적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신안군 낙도 초·중학교 연합 섬드림 합창단원 22명도 어린이날 코시안 학생들과 함께 초청을 받아 청와대를 방문한다. /니주=최승렬기자 srchoi@

■ 사건관리 프로그램 만든 광주지법 정경현 부장판사

모니터 보며 땅!땅!땅! '컴박사 판관'

배석 판사도 랜 통해 재판과정 열람 지법 판사들 "사건서류 줄었다" 환영

"재판을 진행하면서 사건 기록을 뒤적일 필요가 있습니까? 컴퓨터 한대면 모든 재판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광주지방법원 204호 민사법정. 다른 법정과 달리 법대에 컴퓨터 모니터가 설치돼 눈길을 끈다. 광주지법 민사6부 정경현(51)부장판사가 다른 재판관들과 달리 사건서류를 뒤적이지 않고 컴퓨터를 보며 재판을 진행중이다.

올해 자신이 직접 만든 '사건관리 프로그램'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정 부장판사는 광주지법에서 일명 '컴퓨터 프로그래머 판사'로 통한다.

올해 자신이 직접 만든 '사건관리 프로그램'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정 부장판사는 광주지법에서 일명 '컴퓨터 프로그래머 판사'로 통한다.

그가 지금까지 제작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사건관리 프로그램 이외에 업무용 계산 프로그램 등이 다수가 있다. 모두 재판과정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이다.

지난 2월 제작한 사건관리 프로그램은 광주지법뿐 아니라 전주지법, 인천지법 등 일부 지방법원 판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의 한 컴퓨터 프로그래머 업체가 상용화 제안까지 해



광주지법 민사6부 정경현(51·맨 왼쪽)부장판사가 28일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정 부장판사가 이처럼 많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법관이 되기 전 금융기관 전산실에서 1년여를 근무했기 때문이다.

정 부장판사는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인데다 디지털 시대에 재판과정도 변화돼야 한다는 생각이 프로그램 만들었다"면서 "판사들의 요구 사항이 있을 때마다 필요한 부분을 업데이트 시켜 모든 판사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판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판사들도 "기존에는 사건 서류에 파묻혀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사건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사건 서류가 많이 줄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대법원은 최근 종이 없는 재판, '전자법정'을 구현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다. 정 부장판사의 덕분에 광주지법 이미 전자법정이 실현되고 있는 분위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송광사 사천왕상·불갑사 불복장전적 등 전남 문화제 4건 보물 지정

순천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四天王像) 등 전남도내 문화제 4건이 새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됐다.

전남도는 최근 문화재청 중앙문화재위원회의 조사와 심의를 거쳐 순천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과 복장유물, 마천목 좌명공신녹권, 영광 불갑사 불복장전적 등 4건의 문화제가 새로 보물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새로 보물 1467호로 지정된 송광사 사천왕상은 흙으로 조성됐으며, 송광사 천왕문 좌우에 2구씩 모두 4구가 안치돼 있다. 규모가 크면서도 신체 각 부위의 비례가 조화를 이루는 등 사실적 기법이 돋보이는,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순천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복장(佛藏)유물 일괄(보물 제1468호)은 사천왕상 해체하고 보수하는 과정에서 사천왕상 내부에서 발견된 것으로, 고려말에서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전적 12종 14책, 인본다라니 383장, 후령통 등이 포함돼 있다.

마천목 좌명공신녹권(馬天牧 佐命功臣錄券)(보물 제1469호)은 조선 태종 1년(1401) 공신도감에서 절충장군 마천목(馬天牧)에게 발급한 것이다. 길이가 5m 70cm에 이르는 이 녹권은 국내 유일본이며 곡식 석곡면 방승리에 보관되어 있다. 녹권은 공신으로 책봉된 사림의 직함



보물 1467호로 새로 지정된 순천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과 이름, 공신으로 책봉된 경우 및 이에 따른 제반 특권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영광 불갑사 불복장전적(佛腹藏典籍)(일괄 3건 259점)(보물 제1470호)은 ▲석가삼존상·16나한상복장전적 101점 ▲지장보살상·시왕상복장전적 112점 ▲사천왕상 복장전적 46점 등이다. 이로써 전남도내 문화제는 국가지정 문화제가 296점으로 늘었으며, 지방문화재와 합하면 모두 1천7천점에 이르게 됐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빛고을 밝힌 연등 행렬

부처를 공양하고 나라의 태평을 기원하는 연등행렬이 광주공원을 광주대교를 지나고 있다. '광주사암불교연합회'(회장 해항스님)는 28일 오후 옛 전남도청 앞에서 '2006 빛고을 연등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시민 등 3천여명이 참가해 불기 2550년 석가탄신일(5월5일)을 경축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순천 하이스코 시위 민노총 9명 전원입건

지난 27일 순천에서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협력업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과격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민노총 조합원 9명이 전원 불구속 입건됐다. 순천경찰은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민노총 광주·전남본부 금속노조 조합원 이모(38)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7일 오후 순천시 해룡면 울촌산단 고갯길 임시 앞에서 열린 '5·1정신계승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승리 광주·전남 2차 총궐기 대회'에 참석,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르는 등 폭력 시위를 벌인 혐의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0월 하이스코 순천공장 앞에서 열린 '1차 총궐기 대회' 때에는 5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순천=김진숙기자 jsk2229@

■ 광주인권상 공동 수상 조야·닐라파이짓 씨

28일 제7회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공동 선정된 말라피어 조야(여·28·아프가니스탄)씨와 앙카나 닐라파이짓(여·49·태국)씨는 아직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신진 운동가이다. 하지만 이들은 각자 자신의 국가에서 인권을 침해받은 경험을 살려 범세계적인 인권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조야씨는 구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조야 아프간 여성 문맹퇴치 앞장 닐라파이짓 실종방지 국가비준 등 촉구

점령기에 저항운동을 하다 부상당한 아버지를 따라 이란과 파키스탄의 피난민촌을 떠도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구 소련이 철수한 뒤 조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탈레반 체제하에서 불행한 청소년기를 겪었다. 조야씨는 이 같은 경험을 되살려 아프간 시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활발한 운동을 전개해 24세 때인 지난 2002년 제헌회의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그녀는 끊임없는 살해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운동을 멈추지 않았으며, 특히 여성들을 위한 문맹 퇴치운동과 의료사업을 벌였다. 그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권력의 무자비한 폭력과 차별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 투쟁을 전개했다. 또 UN이 '강제실종방지 국가비준'을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재)5·18기념재단 2006년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 관계자는 "조국 유린당한 인권을 구제하기 위해 개인의 삶을 헌신한 두 사람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번 수상이 전세계 많은 신진 인권운동가들에게 격려의 메시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주희기자 jhlim@

절도범, 여성위장 채팅 경찰에 '덜미'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들의 집에 찾아가 귀금속 등을 훔친 20대 절도범이 여자로 위장해 채팅 사이트에 접속한 경찰에게 덜미. ○광주 북부경찰은 지난 2월 28일 오후 1시께 광주시 남구 진월동 김모(여·20)씨의 집에서 팔찌와 반지 등 12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에 한모(22)씨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 관계자는 "한씨가 채팅 사이트에서 계속 범행상대를 물색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 사이트에 접속해 여자라고 속인 뒤 데이터를 신청해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작가 사정으로 오늘 만화 쉽니다.